

心經 後論*

황은 젊었을 때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이 때 처음으로 여관에서 이 책을 보고 구해 읽었다. 나는 비록 중간에 身病으로 공부를 폐하여 ‘늦게 깨닫고 이루기가 어렵다.’는 탄식을 하고 있으나 당초에 이 일에 感發하여 興起한 것은 이 책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평소에 이 책을 높이고, 또한 四書나 近思錄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매양 읽다가 책의 끝에 이르면 또 그 말 사이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생각하기를 ‘吳草廬²⁾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견해에서이며, 篁墩이 이 조항을 취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천하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陸氏³⁾의 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한 뜻이 아니겠는가?’ 하였으며, 이윽고 또 스스로 이렇게 해명하였다.

“朱子の 학문은 大中至正하여 한 쪽으로 떨어지는 폐단이 없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 말씀하기를 ‘위로 떠있는 잘못이 있다.’하여 힘써 門人들을 경계하였으며, ‘收斂하고 착실히 하는 공부를 가지고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그 從遊하는 선비와 私淑하는 무리들이 혹 깊이 이 뜻을 體得하지 못하고 口耳의 학문으로 흘러간 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吳氏와 황돈 두 분은 그 뒤에 태어나 이 도를 밝힐 것을 自任하고 流弊를 바로잡으려는 뜻이 간절하여 부득이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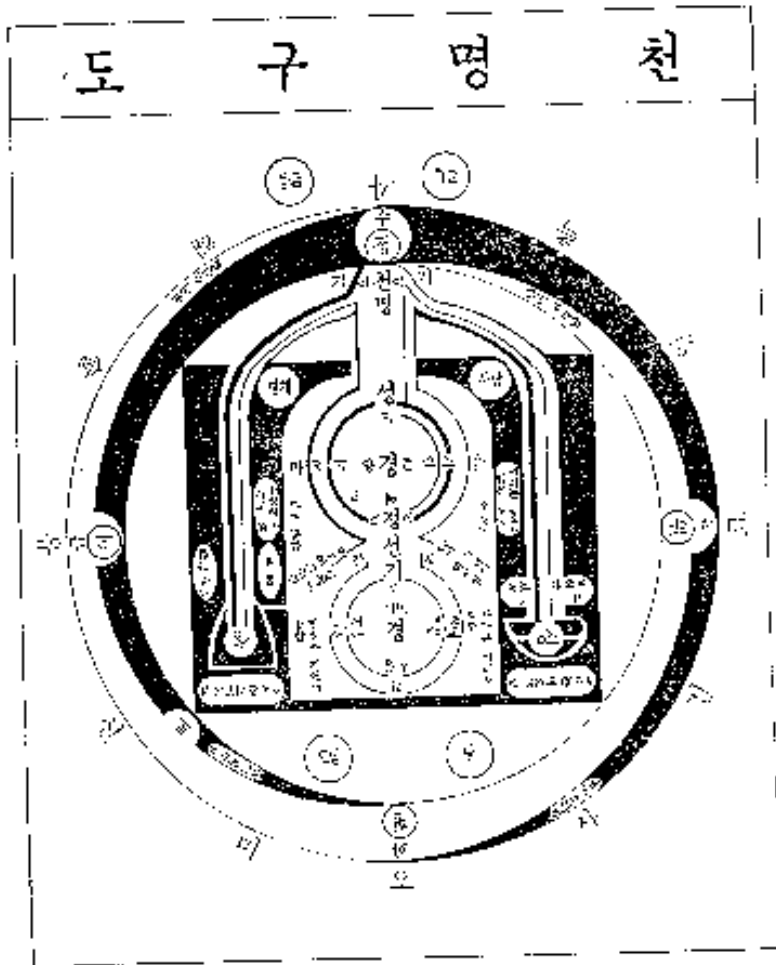
- 1) 心經은 원래 西山의 眞德秀가 心性의 수양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여러 經傳에서 간략하게 뽑아 만든 것인데, 뒤에 篁墩 程敏政이 이와 연관되는 내용을 널리 채집하여 註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정민정의 心經附註를 지칭한 것이다.
- 2) 吳草廬 : 초려는 元나라 때의 학자인 吳澄의 호이다. 자는 幼清이며 시호는 文正이다.
- 3) 陸氏 : 象山 陸九淵을 가리킨다. 자는 子靜이며 性理學에 밝았으나 朱熹와 의견이 달라 서로 論辯한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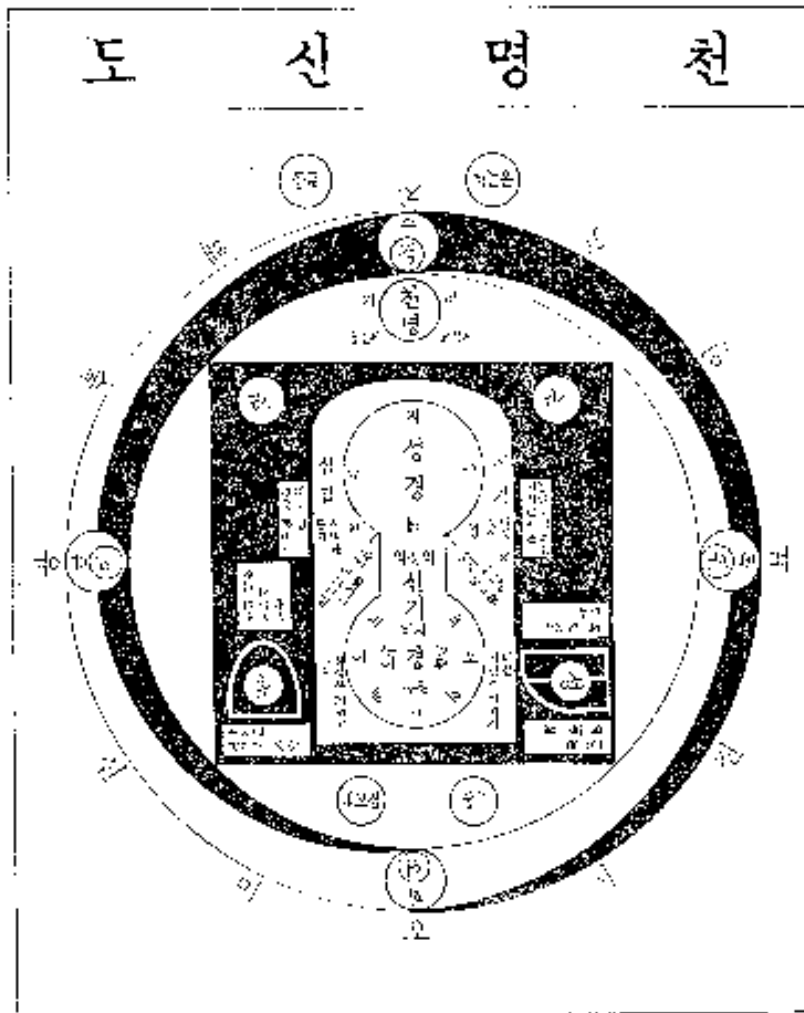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주자의 뜻이니, 무슨 나쁜 것이 있겠는가?”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草廬가 육씨의 학문을 한 사실을 당시에 이미 비판함이 있었고, 후세의 공론도 많다 하여, 또 황돈과 인품과 학문이 필경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여 궁금하였다.

지난번 橫城의 趙士敬⁴⁾이 皇明通紀를 읽다가 그 가운데 箕墩公에 대한 사실 두서너 조항을 기록하여 마침내 이와 같은 것을 대략 알게 되었다. 이에 나는 蓋然히 탄식하고 서글퍼한 지가 여러 달이 되었으나 아직도 석연하지 못하다.

4) 橫城 趙士敬 : 사경은 趙穆(1524~1605)의 자이며, 횡성은 그의 관향이다. 호는 月川, 東阜이며, 퇴계선생의 高弟이다.





그 세 조항 중에 하나는 賣題의 일⁵⁾인데, 이 일의 대강 줄거리는 일찍이 孤樹哀談에서 본 적이 있었다. 公은 劉健과 名望이 같았는데, 公은 일찍이 우연히 ‘유건은 시를 잘 짓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유건은 이에 앙심을 품었으니, 이 獄事를 만든 것은 유건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기를 ‘뇌물을 받고 그 제목을 팔아먹는 일은 스스로 지조를 아끼고 염치가 있음을 조금만 아는 자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처럼 어진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心學을 연구하여 천하의 중한 명망을 지고 있는 자가 이런 짓을 하겠는가. 더구나 그 때에 유건이 막 內閣에

5) 賣題의 일 : 매제는 과거의 글 제목을 유출시키는 것을 이른다. 明孝宗 때에 程敏政이 會試의 고시관이 되었는데, 給事中 華昶과 林廷玉은 정민정이 글제를 팔아먹었다고 탄핵했으나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들어가서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공을 誣陷하여 彈劾을 한 자가 유건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 두 번째는 汪循의 의논인데, 공이 勢利의 두 글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어떤 일을 가리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만일 과연 실제로 지적할 만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스스로 謝上蔡의 ‘앵무새와 같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것은 심학을 전수함에 있어 진실로 의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왕순이 다만 황돈이 일찍이 뇌물을 받고 글 제목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는 것만을 보고서 세리에 빠졌다고 지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의 허실을 이미 분명히 알 수 없으니, 또 어찌 이것으로써 이 분에 대한 定論으로 삼을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 세 번째는 陳建이 公의 道一編을 논한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 이르기를 “황돈이 陸象山의 학문을 彌縫하고자 하여 마침내 朱子와 육상산 두 분의 말씀 중에 初年說과 晩年說을 취하여 일체를 뒤집어 變亂시켜 놓고 주자를 무함하여 이르기를 ‘초기에는 잘못 육상산의 학설을 의심하다가 만년에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육상산과 합치되었다.’ 하였으니, 그 後學을 그르침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學菴通辨과 編年考訂이라는 책을 지어서 주자와 육상산의 학설의 異同과 是非의 歸結을 지극히 밝혔다.”는 것이었다. 아! 진실로 이 말대로라면 황돈이 잘못된 것이니, 그의 학문도 과연 의심할 만한 것이 있겠다.

내 일찍이 생각해 보니, 주자와 육상산 두 학설이 같지 않음은 고의로 같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학이요 저것은 禪學이며, 이것은 올바르고 저것은 부정하며, 이것은 공평하고 저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이니, 이와 같다면 어떻게 서로 같을 수 있겠는가. 孔子는 말씀하시기를 “文을 널리 배우고 禮로써 요약하라.[博學於文 約之以禮]” 하셨으며, 子思는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 말미암으라.[尊德性而道問學]” 하셨으며, 孟子는 “널리 배우고 상세히 말함은 장차 이것을 가지고 되돌

려서 요약함을 말하려 해서이다.” 하셨으니, 博文, 約禮 이 두 가지가 서로 필요함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를 폐하고도 갈 수 있고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실로 주자의 말씀이다. 우리 유가의 家法이 본래 이와 같다.

老先生⁶⁾은 일생 동안 이 두 가지에 종사하여 조금이라도 한 쪽에 너무 치우침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맹렬히 반성하고 통렬히 고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이 書札을 왕복하는 사이에 나타난 것에 서로 抑揚이 있었지만, 이는 바로 우리 유가의 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자퇴하고 스스로 바로잡아서 大中至正의 도에 나아갔을 뿐이다. 어찌 초년에는 지엽적인 文義에 전적으로 빠져 있다가 육상산을 만나 본 뒤에야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서 本原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는가.

나는 아직 道一編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책의 이름을 가지고 陳氏의 말로써 헤아려 보면, 그는 ‘반드시 도는 하나요 둘이 없다. 陸氏는 頓悟하여 한 가지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주자는 초년에 둘로 생각하였다가 말년에는 하나라고 말씀했다.’고 하였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다면 이것은 육상산이 주자에게 의뢰함이 없고, 주자가 도리어 육상산에게 의뢰함이 있는 것이니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 程允夫⁷⁾가 蘇東坡를 끌어다 程伊川에게 붙이고자하여 ‘蘇氏와 程子가 한 점에 있다.’는 말을 하자, 주자는 이를 배척하기를 “이것은 향풀과 악취가 나느 풀 또는 얼음과 불을 한 그릇 가운데 섞어 놓음과 다름이 없으니, 향기나고 깨끗하여 더럽지 않기를 바라나 또한 어렵다.” 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황돈이 주자와 육상산의 두 학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한 것은 또한 정윤부의 견해와 똑같이 된다고 여겨진다. 가령 그 때 주자께서 참으로 말년에 육상산의 견해와 똑같아진 실체가 있었다면, 육

6) 老先生 : 朱熹를 높여 부른 것이다.

7) 程允夫 : 윤부는 程洵의 자이다. 호는 克齋이며, 주희의 문인이다.

씨가 죽었을 때 주자께서 남에게 주신 편지에 어찌 ‘평소에 머리를 크게 쳐들고 이리저리 고함치다가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하고 탄식하실 리가 있으며, 또 어찌 ‘그 학설이 크게 江湖間에 유행되어 어진 자의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자의 과실을 더한다.’고 걱정하셨겠는가. 그리고 육상산은 일찍이 그 門人들에게 말하기를 “朱元晦⁸⁾는 기상이 泰山喬嶽과 같다. 다만 자기의 견해를 스스로 옳다고 하여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하였다. (그의 본래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大意가 이와 같다.)

이것은 두 분이 평소에 한 마디 말씀이라도 서로 도가 같다고 許與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견강부회하여 억지로 하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 어찌 될 일이겠는가. 황돈의 견해가 이미 잘못되었으니, 그 마음 또한 구차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장차 천하 후세의 사람들을 가르침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미 지나간 자취는 한 번 정해져 바꾸기가 어렵고 是非의 밝음은 속일 때가 없음을 모른 것이다. 그가 부지런히 애써서 겨우 성취한 것은 다만 자신의 마음에 잘못이 있음을 나타내어 천하의 비난을 불러올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뇌물에 매수되었다는 獄事는 비록 모함이라 할지라도 勢利에 바쳐 있다는 비난은 혹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나는 이 때문에 탄식하고 서글퍼하기를 여러 달 동안 하고서도 아직도 석연치 못한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과 같다면 황돈이 지은 心經附註도 족히 높이고 믿을 것이 못 된단 말인가?”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는 그렇지 않다. 내 이 책을 보니, 그 經文은 詩經·書經·易經으로부터 程子와 朱子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현의 큰 교훈이요, 그 註釋은 濂洛關閩⁹⁾으로부터 그 후 諸賢들의 말씀을 아울러 취해서 모두

8) 朱元晦 : 원회는 주희의 자이다.

9) 濂洛關閩 : 염은 濂溪, 낙은 洛陽, 관은 關中, 민은 閩中을 가리킨다. 송나라 때의 儒賢인 周敦頤는 염계에 살았고, 程顥·程頤 형제는 낙양에, 張載는 관중

가 지극한 의논이니, 어찌 황돈이 잘못이 있다 하여, 성현의 큰 가르침과 지극한 의논까지 아울러 높이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그 나머지는 진실로 그렇다 하거니와 마지막 章의 註에 있어서는 이미 주자의 말씀을 가지고 초년설과 만년설이 다르다고 나누어 놓았고, 초려의 말로 끝을 맺었으니, 이것은 바로 도일편과 똑같은 규모요 의논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도일편을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이 註를 취한단 말인가?”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다만 博文만을 힘쓰고 조금이라도 約禮의 공부를 늦춘다면, 그 폐단은 반드시 口耳의 학문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도 당시에 이를 걱정하시고 경계하시를 간절히 하였는바, 진실로 이 주에 인용된 12條의 말과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문인들이 지은 行狀에도 또 이르기 를 ‘선생은 말년에 諸生들이 文義에 얽매이는 것을 보고는 비로소 本體를 분명히 지시해 주셨다.’하였으니, 그렇다면 德性を 높여서 문에 빠지는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황돈의 말이 아니요, 바로 주자의 뜻이 그러한 것이다. 다만 황돈이 이에 대하여 초년설과 만년설을 나누는 데 급급한 것이 온당치 못할 뿐이다.

주자의 뜻을 따라 西山의 經文¹⁰⁾을 부연해서 이것을 책의 끝에 註하여 末學들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 것은 실로 지극히 마땅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다만 주자의 말씀만을 인용하고 여러 儒者들의 말을 보충하여 주자가 말씀한 조항을 발명하였고, 한 마디도 陸氏의 학문에 언급하지 아니하여, 주자가 말년에 잘못을 뉘우치고 육씨와 합했다고 말한 도일편과는 전혀 같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적이 생각하기를 ‘지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박문·약례의 공부를 모두 지극히 함은 주자께서 이루어 놓은 공이며, 지·행

에, 朱熹는 민중에 살았으므로, 이들 유현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10) 西山의 經文 : 서산 眞德秀가 지은 心經의 본문을 가리킨 것이다.

두 공부를 서로 유익하게 함은 우리 유가의 본래 법임을 알아서 이것으로써 이 경문과 이 주석을 읽을 뿐이며, 황돈의 도일편의 오류를 이 사이에 끼워 넣어 혼란시키지 않는다면, 聖人이 되고 賢人이 되는 공부가 진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여긴다. 이것을 높이고 믿는 것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許魯齋¹¹⁾는 일찍이 말하기를 '내 小學을 神明과 같이 공경하고 부모와 같이 높인다.' 하였는데, 나는 心經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다. 다만 초려의 말은 반복하여 연구해 보면 끝내 伊蒲塞¹²⁾의 氣味가 있으니, 羅整菴¹³⁾이 배척한 말이 맞는다.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을 선택하여 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린다면, 그 또한 좋을 것이다."

皇明 嘉靖 45년(1566) 丙寅 孟秋일에 眞城 李滉은 삼가 쓴다.

11) 許魯齋 : 노재는 元나라 초기의 학자인 許衡의 호이다. 자는 仲平이며 程朱學에 밝았다.

12) 伊蒲塞 : 梵語로 居士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13) 羅整菴 : 정암은 명나라의 학자인 羅欽順의 호이다. 자는 允升이고 시호는 文莊이며, 저서로 困知記가 유명하다.